
부드러운 여름바람

" 제 눈에서 멀어지지 말아주세요. "

바다는 위험하니까요.

[외관]



[이름]

별 / Byeol

편하게, 별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.

[진영]

히어로

[키, 몸무게]

160 cm / 44 kg

[나이]

21세

[성별]

여

[이능력]



천리안

시전자의 시야를 방향에 따라 반경 약 **7km** 까지 증폭시켜 투시한다. 투시로 본 대상은 적외선의 형태로 시전자에게 인식된다. 이 이능력은 다른이에게도 적용 가능하며 과하게 사용 할 경우 각막에 무리가가거나, 홍채의 색이 바라는 등 영구적인 안구손상이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제 눈에서 멀어지지마세요.

[종족]

인간

[성격]

MAIN KEYWORDS

박애주의 . 계획적인 . 단호한

모두 제가 책임져야 할 테니까요

그녀는 모든 것을 제 맑고 투명한 눈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. 어느 누구의 선입견이나 사상도 받아들이지 않은채로 제 눈만으로 바라봅니다. 누가보면 고집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, 긍정적으로 쳐다보거나 사람을 가리지 않는 그의 친절함은, 그녀를 나쁘게 보기 어렵게 하곤 합니다.

오래되었어요, 이번일도요. 막내라고 대부분 때말았지만요... (웃음)

그녀가 제법 어린나이에 히어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계획적인 성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. 공적인 일에서는 매우 차분하고 이전과는 분리한 것 같이 깔끔하게 처리하곤 합니다. 공과 사는 분리되어야 마땅한 것이지만, 조금 과하다고 해야할까요?

엄수현

부드럽고 모두를 선입견에 두지않고 제 푸르고 옳은 눈으로 바라보지만, 강하게 쳐내거나 밀어낼 때를 정확하게 알고있습니다. 공적인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을 전부 갖추고있으니

단호한 성격은 당연히 가지고있습니다.

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부드럽고 유하기에.

[기타]

◆ 생일은 **3월 25일**, 양자리입니다.

◆ 가족관계에 예민한 모습을 보입니다. 듣기로는 위로 나이차이가 많아나는 형제와 어머니가 계신다고 합니다. 그녀와 대화하면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요.

◆ 한국국적에 사무직 히어로를 맡은지 오래되었습니다. 이름은 놀랍게도 ... **본명**입니다.

◆ 안대를 차고있는 오른쪽 눈 밑에 가볍지만은 알아보이고 오래되어 보이는 **화상흉터**가 보입니다. 무언가에 강하게 그을린 듯한.
